

## 조선 후기 래지덕(來知德) 역학(易學)의 수용과 비판\*

김 영 우\*\*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래지덕 역학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수용과 비판 양상을 연구한 것이다. 조선의 역학사는 성리학의 역학사라 할 만큼 정이와 주희의 의리 역학이 중심이 되어왔고, 『주역전의대전』이 『주역』 해석의 기본서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패효의 ‘상’(象)에 대한 탐구를 통해 『주역』의 패효사를 해석하고자 하는 상수역학에 대한 관심 또한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래지덕의 『주역집주』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조선의 학자들 중 일부는 래지덕의 역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그의 해석을 따르기도 하였고 나아가 착중설을 활용하여 『주역』에 관한 새로운 해석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 학자들은 래지덕의 상수역학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주역』 해석에서 상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상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이유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희의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과제번호: NRF-2012S1A5A2A03034180)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부교수

『주역』 해석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주역』 해석이 반드시 상에 근거해야 한다는 래지덕의 입장을 긍정하면서도 착종설과 같은 래지덕의 역 해석 방법이 잘못임을 지적하였다. 대신 그는 ‘역리 사법’(易理四法)이라는 해석 이론을 창안하여 『주역사전』이라는 새로운 역학 저술을 남겼다.

조선 학계에서 래지덕 역학은 결과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성리학의 권위를 넘어 새로운 『주역』 해석을 시도한 조선의 지식인에게 긍정적인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명대 역학자 래지덕(來知德, 1525~1604)의 『주역집주』(周易集注)에 대한 조선 학계의 수용과 비판의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조선 역학사는 성리학의 역학사라 할 만큼 정이(程頤, 1033~1107)와 주희(朱熹, 1130~1200)의 역학이 중심이 되어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까지도 정이의 『역전』과 주희(朱熹)의 『주역본의』를 합본한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이 『주역』 해석의 기본서 역할을 하고 있을 만큼 정이와 주희의 역 해석은 조선 시대 내내 『주역』 해석의 절대적 권위를 누려왔다. 조선 역학의 최고 성과로 평가받는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주역사전』(周易四箋)이 주목되는 이유도 『주역전의대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주역사전』은 『주역전의대전』과 대비되어 그 새로움이 빛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약용의 『주역사전』이 나오기 이전까지 조선의 역학 연구자들은 『주역전의대전』의 역 해석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고 새로운 역 해석은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주역전의대전』에 수록된 정이와 주희의 역 해석 또한 동일한 괘효사(卦爻辭)에 대해 다르게 해석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전』과 『주역본의』의 해석 중 어떤 해석이 올

바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직 우리의 연구 역량이 그런 다양한 해석을 미처 발굴해 내지 못하고 특정한 인물의 역학에 집중하고 있어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특정한 인물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조선 역학사는 실제로는 『주역』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각축하는 역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조선 시대의 『주역』 주석서 가운데 동일한 해석은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정약용의 『주역사전』은 천재 학자에 의해 갑자기 탄생한 저술이 아니라 조선 역학계의 오랜 분투의 결과물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특히 정약용의 『주역사전』이 나오기 이전 『주역』 해석에 있어 패효사의 ‘상(象)’을 중시하는 일련의 흐름이 조선 역학사에서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역』 해석의 방법을 의리역학(義理易學)과 상수역학(象數易學)으로 나눌 때 조선의 역학은 전기에 의리역학이 주도하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상수역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다.<sup>2)</sup> 이는 패효사를 『주역』 고유의 문법에 충실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후대로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약용의 『주역사전』은 『주역』의 패효사를 상수역학의 해석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자 한 조선 후기 상수역학 연구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역학이 의리역학에서 상수역학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1)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세웅, 조호익, 유정원, 김도, 신후담, 안정복 등의 역학이 새롭게 발굴 소개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엄연석(2001), 『조호익의 역학의 상수학적 방법과 의리학적 목표』, 대동문화연구 38; 엄연석(2009), 『순암 안정복의 『주역』 인식과 상수의리론』, 『철학사상』 34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엄연석(2011), 『이세웅의 의리역학적 『주역』 해석과 상수적 요소』, 民族文化; 서근식(2005), 『성호 이익의 『주역』 해석에 관한 연구』, 『퇴계학논집』 117, 퇴계학연구원; 김영우(2014), 『金濤 『周易淺說』의 義理易學 연구』, 『동양철학』 42집, 한국동양철학회; 최영진, 이선경(2014),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일고찰』, 『정신문화연구』 135호).

2) 엄연석(2013), 『조선전기역철학사』, 서울: 한국연구원, p. 573.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상수역학으로의 방향 설정 이후 정약용의 『주역사전』이 나오기 이전 조선의 상수역학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을까? 본고는 위의 질문 가운데 특히 두 번째 물음과 관련하여 래지덕 역학의 수용과 전개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조선 역학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래지덕 역학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sup>3)</sup> 하지만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조선 후기 역학에서 래지덕 역학의 영향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지속적이었다. 본고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이다. 이 글은 먼저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할 것이다.

## 2. 래지덕 역학의 수용 배경

조선 시대 『주역』 연구자들은 대체로 정이의 『역전』과 주희의 『주역본의』의 해석을 기준으로 괘효사(卦爻辭)를 이해하였다.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정이의 『역전』이 중심 역할을 하였으나 『주역전의대전』이 조선에 전해진 이후로는 『정전』과 함께 『주역본의』가 기본서가 되었다.<sup>4)</sup> 『주역전의대전』은 언해본이 편찬되었을 정도로 조선시대 내내 『주역』 해석의 기본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정전』과 『주역본의』는 모두 『주역』 해석을 통해 성리학의 의

3) 래지덕 역학에 대한 안정복과 정약용의 비판을 다룬 논문이 두 편 있으나, 두 편 모두 래지덕 역학이 조선 역학에 차지한 위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비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방인(2002), 「茶山의 明清易學 비판」, 『철학연구』 84집, 대한철학회; 엄연석(2009), 「순암 안정복의 『주역』 인식과 상수의리론」, 『철학사상』 34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4) 『周易傳義大全』은 명대(明代) 시기인 1415년에 간행되었으며 조선에 들어온 것은 1419년이다. 고려말 성리학자들이 수입한 역학 서적에 주희의 『주역본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전까지는 정이 『역전』이 주로 수입되고 연구되었다. 주희의 『주역본의』가 조선에서 간행된 것은 16세기 후반 이후로 확인된다(우정인(2009),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65).

리를 밝힌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둘 사이에 일치하는 해석도 있지만, 『주역』이라는 책에 대한 인식과 해석 방법 및 해석 내용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정이는 『주역』을 의리서로 인식했기 때문에 괘효사 해석에서 의리를 밝히는 데 목표를 두었고 한대의 상수역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주희는 비록 『주역』이 의리를 말하고는 있지만, 역이란 본래 점서(占書)였기 때문에 괘효사를 해석하는데 있어 점서적 기원을 갖는 『주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른 경전들과 달리 『주역』은 괘와 효라는 상징과 그와 관련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상’에 근거하여 경문을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주희는 당시의 역학 연구의 풍조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경전 자체의 맥락과 무관하게 의리를 앞세우는 경향에 대해 깊이 경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희는 정이의 『역전』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역은 본래 복서(卜筮)로 인하여 상이 있고 상으로 인하여 점이 있으며 점사 속에 도리(道理)가 있다. 예컨대, 점을 쳐서 건괘 초구를 얻으면 초구의 양이 아래에 있으니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상은 숨은 용이고, 그 점은 쓰지 말라는 것이다. 대개 건괘를 만나 이 효를 얻은 자는 마땅히 이러한 상을 보고 그 점을 완미하여 숨어 있되 쓰지 않는 것이 옳다. 다른 역의 해석도 모두 이와 유사하니 이것이 역의 본래 취지이다. 숨은 용이니 쓰지 말라는 이것이 도리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단사, 상사, 문언의 구절마다 이 뜻을 미루어 나가 그 도리가 끝이 없었다. 정이의 『역전』은 미루어 논한 것이 무궁하지만 역의 본래 뜻은 못된다. 먼저 역의 본뜻에 통한 후라면 도리가 무궁하여 미루어 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루어 논한 것으로 역을 해석하게 되면 역의 본뜻을 잃게 될 것이다.<sup>5)</sup>

5) 朱熹, 『朱子語類』 권68, “易本因卜筮而有象, 因象而有占, 占辭中便有道理. 如筮得乾之初九, 初陽在下, 未可施用, 其象為潛龍, 其占曰勿用. 凡遇乾而得此爻者, 當觀此象而玩其占, 隱晦而勿用可也. 它皆倣此, 此易之本指也. 蓋潛龍則勿用, 此便是道理. 故聖人為彖辭象辭文辭, 節節推去, 無限道理. 此程易所以推說得無窮, 然非易本

주희는 정이의 『역전』이 의리(義理)를 말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를 갖지는 않았지만 복서를 위해 만들어진 역의 본래 의미를 벗어나 의리를 공담하는 것은 반대하였다.<sup>6)</sup> 주희가 정이의 『역전』과 대비하여 자신의 저술에 ‘본의’(本義)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는 『주역』 괘효사의 본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주희는 정이와 달리 『주역』에 나오는 상(象)을 밝히는 데 보다 유의하였고, 그 결과 역 해석에 있어 괘변(卦變)과 같은 한대(漢代) 상수역학의 해석 방법을 수용하기도 하였다.<sup>7)</sup>

이와 같이 『주역』을 대하는 정이와 주희의 관점에 차이가 있고, 실제 해석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선의 학자들이 『주역전의대전』을 통해 『주역』을 읽을 때는 『정전』과 『주역본의』 가운데 어떤 해석을 따라야 할 것인지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적으로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는 『정전』이 주로 읽혔고, 『주역전의대전』이 들어온 이후에도 이황(李滉, 1501~1570)에 이르기까지 『정전』이 주도하였다. 이황은 『주역본의』와 『정전』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주역본의』보다는 『정전』의 의리적 관점에서 괘효사를 해석하였다.<sup>8)</sup> 그러나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 이르러 이러한 흐름은 역전되게 된다. 송시열은 『주역』을 읽고자 한다면 『정전』이 아니라 『주역본의』의 해석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송시열은 김창협(1651~1708)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역』을 읽고자 하신다니 매우 좋습니다. 이 책은 정이의 『역

---

義也. 先通得易本指後, 道理儘無窮, 推說不妨. 若便以所推說者去解易, 則失易之本指矣.”

- 6) 廖名春 외(1994),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pp. 512-514.  
 7) 朱熹, 『易學啓蒙』 『考變占』, “易中先儒舊說, 皆不可廢, 但互體五行納甲飛伏之類, 未及致思耳. 卦變獨於彖傳之詞, 有用故也.”  
 8) 엄연석(2013), p. 472.

전』으로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약 주자의 『본의』로 읽는다면 다른 책에 비해 더욱 간명하고 쉬울 것입니다. 건괘(乾卦)의 초효(初爻)는 괘의 가장 아래에 있으므로 그 상이 숨어있는 용이 됩니다. 점을 쳐서 이 효를 얻게 되면 점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역전』의 경우라면 효가 응당 이와 같은지, 사람이 응당 이와 같이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자 선생께서는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학자들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주역』을 읽을 때에는 모름지기 『역전』과 『본의』의 차이를 구별하여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역전』의 경우에는 역을 해석한 책으로 보지 말고, 마치 호안국의 『춘추전』이 『춘추』에 대한 관계처럼 역과는 별개의 의리를 구한 책으로 간주한다면 저절로 역경과 서로 방해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sup>9)</sup>

송시열은 건괘 초구의 효사 ‘잠용물용’(潛龍勿用)을 해석할 경우, 정이의 『역전』을 따라 해석하려고 하면 ‘초구’가 무슨 뜻인지, 초구에 왜 ‘잠용물용’이라는 효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잠용물용’이라는 효사를 점과 관련하여 어떻게 판단할지 등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본다. 역을 통해 의리를 탐구할 수 있으나 역은 어떤 특정한 일이나 의리를 직접 기술하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을 해석하려면 우선 괘효사가 복서로 인하여 쓰여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괘효사의 상에 입각하여 해석을 하여야 한다. 괘효사의 상에 입각하여 해석하지 않고 의리만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리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따라서 『주역』의 해석은 먼저 괘효사의 상을 파악하고

9) 宋時烈, 『宋子大全』卷92 「答金仲和-丁巳四月六日」, “承欲讀周易, 甚善. 此書, 以程傳求之, 則愈久而愈難. 如以本義, 則視他書尤簡易. 如乾之初爻, 最在一卦之下, 故其象爲潛龍, 而人之筮得此爻者, 不可施用也. 如程傳則未知爻當如是耶 人當如是耶. 朱先生於此屢與學者言之矣. 高明讀時須分別於傳義之間, 毋令相混. 而於傳則不以易看, 別以一義理求之, 如胡傳之於春秋, 則自與經, 兩無所妨矣.”

그 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점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송시열의 주장은 앞서 『주자어류』에서 말한 주희의 역 해석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sup>10)</sup>

송시열 이전 『주역』 해석에서 괘효사의 상을 주목하여 해석한 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이세응(李世應, 1473~1528)은 의리학의 해석 방법을 원용하면서도 괘·효사 해석에서 한대 역학의 호체설을 적용하여 괘효사를 해석하였다.<sup>11)</sup> 또한 조호익(曹好益, 1545~1609)은 호체설과 괘변설 등 한대 상수역의 해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역』을 해석하기도 하였다.<sup>12)</sup> 하지만 이들은 괘효사에 관한 상수역학적 해석의 권위를 특별히 주희에게 두지 않았다. 반면 송시열은 『정전』과 『주역본의』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주역』 해석에 있어 주희의 관점을 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송시열 자신은 『주역』에 관한 별도의 저술을 남기지 않았지만, 송시열의 관점은 이후 그의 후학들이 『주역』 해석에서 의리를 논하기에 앞서 괘효사의 상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3)</sup> 조선의 학자들이 명대(明代) 역학자 래지덕의 역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송시열 이후 『주역』 해석에서 주자 『본의』에 근거하여 괘효사의 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정전』과 비교하여 『본의』를 중시하는 송시열 역학 관점에 대한 계승을 내세우면서 래지덕의 상수역 이론을 활용하여 『주역』을 해석한 역 해석서인 『역설』이 저술된 것은 래지덕 역학의 수용에 송시열의 관점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또한 조진관(趙鎭寬, 1739~1808)이 그의 문집에서 송

10) 朱熹, 『朱子語類』 권68.

11) 엄연석(2013), p. 335.

12) 엄연석(2001), p. 229.

13) 그동안 『역설』은 우암 송시열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으나 송시열 역학의 계승을 표방한 후학의 작품임이 밝혀졌다(김영우(2013), 『『尤庵易說』 研究』 『동양철학』 40집).

14) 『역설』의 저자는 서론에서 송시열 역학을 계승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본문에서는



시열의 문인 박수검(朴守儉, 1629~1698)을 언급하면서 그를 위대한 동방의 래의선(來矣鮮)이라 일컬은 점<sup>15)</sup>은 송시열의 역학 사상이 래지덕의 상수역학 수용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sup>16)</sup>

### 3. 래지덕 역학의 수용과 전개

래지덕은 자(字)가 의선(矣鮮)이고 호는 구당(瞿塘)이며 사천(四川) 양평인(梁平人)이다. 1571년 만현(萬縣) 구계산(求溪山)에 은둔하면서 『주역』 연구에 몰두하여 1599년 『주역집주』(周易集註)를 완성하였다.<sup>17)</sup> 『주역집주』는 그의 친구 곽자장(郭子章)에 의해 1601년 처음 판각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판각이 이루어졌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판본 가운데 간행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1643년 판본인 『신각래구당선생역주(新刻來瞿唐先生易註)』 15권이다.<sup>18)</sup> 『주역집주』의 첫 번째 간행이 1601년이고 규장각에 1643년 판본이 남아있으나 조선의 학자들이 이 책을 언제부터 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주역전의대전』의 경우는 국

---

래지덕의 상수역학방법을 적용하여 괘효사를 해석하였다(김영우(2013), pp. 90-91).

- 15) 趙鎮寬, 『柯汀遺稿』 卷9 「易問」 上. “林湖朴氏【名守儉. 尤庵宋先生時烈門人. 著絕韋餘篇】之說易也, 凡一字一義, 皆傳之象, 如象斷一卦象爲六爻之象, 其亦大東之矣鮮【來知德字】也歟.”
- 16) 후술하겠지만 남인 학자보다 서인 학자들이 래지덕 역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던 것 또한 서인의 학문적 종장인 송시열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 17) 戶田豊三郎(1968), 『易經注釋史綱』, 東京: 風間書房, p. 674.
- 18) 서울대학교奎章閣에는 모두 세 종류의 판본이 있다. 1643년 판본인 『新刻來瞿唐先生易註』 15卷 (奎中 2842-v.1-6), 1688년 판본인 『梁山來知德先生易經集註』 16卷 (奎中 4695-v.1-10), 『新刻來瞿唐先生易註』를 1729년 그대로 간행한 『重刻來先生易經圖註全解』 15卷 (奎中 4739)의 세 판본이다.

가에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쉽게 전파되었지만 『주역집주』의 경우는 1601년 간행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학자들 사이에 읽혀졌던 것으로 보인다. 『주역집주』의 간행 시기를 고려하면 송시열(1607~1689)과 김창협(金昌協, 1651~1708) 등이 『주역집주』를 접했을 개연성이 있지만 문헌상의 기록으로는 김창협의 손자인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문인인 박윤원(朴胤源, 1734~1799)에 와서야 문집에 래지덕과 그의 역학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sup>19)</sup> 현재까지는 래지덕의 『주역집주』가 정확히 어떻게 조선에 전래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sup>20)</sup> 그러나 분명한 것은 래지덕의 『주역집주』는 간행된 후 150년이 지난 18세기 중반부터 조선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탐독되었고 급기야 18세기 후반 정조가 주관한 경연에서 래지덕의 『주역』 해석이 논의될 정도로 조선 역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기록상으로 래지덕 역학을 가장 먼저 언급한 학자는 남인계 학자 이익(李瀼, 1681~1763)이다.<sup>21)</sup> 이익의 저서에는 래지덕 역학에 대해 제자인 신후담, 안정복과 논의한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sup>22)</sup> 안정복(安鼎福, 1721~1791)의 경우는 래지덕 역학에 관하여 이익의 의견을 들었을 뿐 아니라 윤동규(尹東奎, 1695~1773)와도 래지덕 역학을 논하였다. 이익과 안정복은 모두 래지덕의 역학 이론이 대부분 건강부회에 가깝다는 비판적

19) 朴胤源, 『近齋集』 卷25 「易經筭畧」.

20) 앞서 조진관이 송시열의 문인 박수검이 동방의 래의선이라 불린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박수검이 래지덕처럼 상을 중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박수검이 래지덕의 역학을 알고 있었는가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21) 이때 ‘가장 먼저’란 이익이 태어난 해가 다른 학자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다. 실제로 누가 가장 먼저 『주역집주』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22) 李瀼, 『星湖先生全集』 卷23 「答愼耳老」. “來氏易雖知其傳會者多, 其一生精神, 恐或有獨得, 合於君意者, 未可錄寄耶.”; 李瀼, 『星湖先生全集』 卷24 「答安百順」. “如李光地虛象之說, 與來知德反對, 未見分曉, 未知如何? 如來易者雖不見書, 略聞其規模, 多出傳會, 不足取也.”

인 입장이었다.<sup>23)</sup>

소론 출신 학자로는 심육(沈鎔, 1685~1753)과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문집에 래지덕 역학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심육은 둔곡 이진병(李震炳, 1679~1756)이 래씨역을 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었다고 기록하였다.<sup>24)</sup> 홍양호의 경우는 『역상익전』(易象翼傳)이라는 저술을 남겼는데 이 책에서 그는 괘효사를 해석하면서 래지덕의 착종설(錯綜說)과 중효설(中爻說)을 활용하여 『주역』을 해석하였을 정도로 래지덕 역학을 적극 수용하였다.<sup>25)</sup> 특이한 것은 찰방 벼슬의 평안도 학자 계덕해(桂德海, 1708~1775)도 착종(錯綜), 중효(中爻) 등 래지덕 역학 이론을 자신의 역학 저술에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노론계 학자 가운데는 앞서 언급했던 박윤원과 함께 임성주(任聖周, 1711~1788), 이민보(李敏輔, 1720~1799), 오재순(吳載純, 1727~1792) 등의 문집에 래지덕 역학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임성주는 래지덕의 역학이 비록 천착하고 건강부회한 곳도 많지만 대체로 의미가 깊고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27)</sup> 이민보는 ‘제래지덕역서’(題來知德易書)라는 시를 남겼다.<sup>28)</sup> 임성주와 이민보의 경우에는 래지덕 역학이 단순히 거론되는 수준이었지만 박윤원과 오재순은 래지덕 역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주역』 해석에 참고하거나 래지덕 역학에 대한 비평적 평가를 남겼다.<sup>29)</sup> 박윤원은 래지덕의 착종설과 중효설을 활용한 주석

23) 엄연석(2009), pp. 42~44.

24) 沈鎔, 『樗村先生遺稿』, 卷18 “遁谷近讀來氏易, 羨其老年讀書, 以詩寄之.”

25) 洪良浩, 『耳溪外集』 卷4 「易象翼傳」.

26) 桂德海, 『鳳谷桂察訪遺集』 卷1.

27)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卷2 「與樸泉宋兄」. “比得來知德易註, 其言往往有穿鑿牽強處, 亦或有首尾不相應處. 然大體極有意思, 參考以究, 極多啓發處.”

28) 李敏輔, 『豐墅集』 卷5.

29) 오재순은 「讀來氏易註」라는 글을 남겼다. 오재순은 ‘래지덕이 오로지 상을 위주로 하여 괘효의 의미는 도리어 밝히지 못하였다’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吳載純,

서를 남겼는데 그는 소축괘(小畜卦) 구삼효를 해석하면서 주자의 해석과 비교하여 래지덕의 해석을 높이 평가하였다.<sup>30)</sup> 주자의 해석에서는 구삼(九三)이 강이부중(剛而不中)하여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박윤원은 래지덕의 취상설이 훨씬 그럴듯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주역본의』의 해석에서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의문을 래지덕의 『주역집주』가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에는 송시열의 역학관을 계승하면서도 래지덕의 역학 이론을 참고한 독자적인 역 해석서가 나오게 된다. 앞서 언급한 『역설』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같이 래지덕 역학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선 후기 역학계에 많은 영향을 남겼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1783년과 1784년 정조가 진행했던 경사강의(經史講義)에서도 래지덕의 역학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주와 신료가 함께 참여한 『주역』에 대한 강학에서 래지덕의 역설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학계에서 래지덕의 『주역집주』가 얼마나 널리 읽혔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경사강의는 정조가 『주역』 해석에 관하여 신하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홍재전서』에 인용되고 있는 래지덕의 역설은 곤괘(困卦), 정괘(鼎卦), 풍괘(豐卦), 태괘(兌卦), 소축괘(小畜卦)의 모두 다섯 개의 효사에 대한 해석인데, 정조의 질문과 김희조(金熙朝), 이청(李晴), 성종인(成種仁), 김계락(金啓洛)의 답변에 나타나 있다. 정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정전』과 『주역본의』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지만 래지덕의 해석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당시 강의에 참석한 이청은 래지덕의 해석이 상에 따라 말한 것으로 취할 만한 의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醇庵集』 권9, 「讀來氏易註」. “專主於象, 不明於卦爻之義”.

30) 朴胤源, 『近齋集』 卷25 「易經筮畧」. “來易曰. 乾錯坤, 輿之象, 變兌爲毀折脫輻之象也. 中爻離爲目, 巽多白眼, 反目之象也, 說得巧密.”

래지덕(來知德)은 “구사의 효(爻)가 변하면 중효(中爻)가 진(震)이 되니 밭의 상이고 역시 중효가 변하여 태(兌)가 되니 부러지는 상이다. 그래서 밭이 부러진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절재 채씨와 운봉 호씨의 말은 내용의 뜻으로 말한 것이니 『정전』과 『본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서계 이씨와 래지덕의 말은 상으로 말한 것인데 역시 취할 만한 의의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선대 학자가 말한 “상으로 보나 내용의 뜻으로 보나 통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sup>31)</sup>

성종인 또한 정조가 풍괘 과사를 해석하면서 ‘래지덕이 문왕(文王)은 풍(豐)의 상징을 하루의 상(象)으로 보았고, 주공(周公)은 열흘의 상으로 보았다.’라고 한 주석을 인용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러나 지금 저 열흘이라는 것은 수치의 한 단위가 찬 것이니, 이로써 풍성함을 비유하는 것도 진실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읽는 이는 비록 『정전』과 『본의』를 위주로 하지만, 이러한 말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루니 열흘이니 하는 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중’(日中)이라는 것은 하루의 중간이니 이것은 곧 문왕(文王)의 과사(卦辭)의 뜻입니다. 따라서 문왕이 하루를 풍(豐)으로 상징한 것은 대개 근거함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열흘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을 단위로 말하면 초구가 한창 성하는 시기에 처하는 것은 마치 한 달 중에 열흘과 같은 것이니, 이는 곧 주공(周公)의 효사(爻辭)의 뜻입니다. 따라서 주공이 열흘로 풍성함을 상징한 것도 그럴듯합니다.<sup>32)</sup>

성종인은 『역전』과 『본의』의 해석을 위주로 『주역』을 해석하는 것이 옳지만 래지덕의 해석과 같은 경우도 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

31) 정조, 『국역홍재전서』 권12, p. 117.

32) 정조, 『국역홍재전서』 권12, p. 128.

이고 있다.

하지만 정조는 래지덕의 역설이 비록 일부 기발한 해석이 있을지 모르나 『주역』 해석의 취지가 정이나 주희 역학에 대한 비판만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받아들일 만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래지덕의 괘종(卦綜)과 모기령(毛奇齡)의 괘변(卦變)은 한유(漢儒)들이 말한 것을 흠쳐다 정자와 주자를 헐뜯은 것이니 이는 또 무슨 마음인가. 주자는 강유(剛柔)와 왕래(往來)를 말할 때면 언제나 괘변(卦變)을 썼다. 다만 한유(漢儒)들처럼 건강부회와 천착(穿鑿)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왕보사(王輔嗣)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한유들의 설을 정자와 주자가 잘 몰랐다고 한다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는가. 정자의 『역전』은 의리를 가지고 상수(象數)를 추론한 것이고, 주자의 『본의』는 상수에다 의리를 실은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학자들의 주장에서 보이던 편고(偏枯)의 흠은 없어지고 대역(大易)의 충만하는 쓰임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수(象數)는 밖을 향해 치달려 나가기 쉽고 의리는 체험에 절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조문(條問) 수백여 항목은 의리(義理)의 측면에서 논한 것이 대부분이고 간간이 상수를 참고한 것도 있으니, 독자들은 이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sup>33)</sup>

『정전』과 『본의』가 『주역』 해석의 기본서로 인정되어 왔던 조선 학계에서 래지덕의 착종설은 주희를 비판하기 위해 한대 상수역을 차용해 온 이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sup>34)</sup> 래지덕 역학이 『주역』의 상을 말한 것에 긍정적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전』과 『본의』의 수준을 넘어설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정가와 주희의 설이 역

33) 정조, 『국역홍재전서』 권18, p. 58.

34) 위의 글은 경사강의를 책으로 편집한 이후 그에 대한 해제라 할 수 있는 『羣書標記』의 내용이다.

해석의 기준임을 국왕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래지덕 역학에 대한 비판과 대응

##### 4.1. 래지덕의 착종설

역학사에서 래지덕 역학의 가장 큰 특징은 착종설(錯綜說)에 있다. 착종이라는 말은 본래 『주역』 「계사전」의 ‘그 수를 섞고 합한다’[錯綜其數]는 말에서 유래하였다.<sup>35)</sup> 주희는 『본의』에서 착종을 해설하면서 착종을 단지 시초를 헤아려 괘를 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래지덕은 착종 개념을 확대하여 괘상 해석 이론일 뿐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반영한 역학 구성의 핵심 원리로 발전시켰다.<sup>36)</sup> 착종설은 래지덕이 30년 역학 공부를 통해 성취한 핵심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래지덕이 착종설이라는 새로운 역학 이론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래지덕은 『주역집주』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왕조에서 『역경』과 『성리대전』을 찬수하고 유가의 여러 주석들과 책들을 모았으나 리(理)로 역(易)을 말하는 것일 뿐이었다. 모두 그 상(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문왕의 서괘(序卦)를 알지 못하였고 공자의 잡괘(雜卦)를 알지 못하였으며, 후유(後儒)의 괘변(卦變)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네 가지를 이미 알지 못하였으니 역은 그 문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문을 찾아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주소(註疏)에서 한 말이 모두 문 밖의 찌꺼기이며 문 안의 오묘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공자가 죽은 이후 역이 망함

35) 『주역전의대전』 「계사전」 상 10. “參伍以變, 錯綜其數, 通其變, 達成天地之文, 極其數, 遂定天下之象, 非天下之至變, 其孰能與於此.”

36) 주백곤(2013), 김학권 외 역, 『역학철학사』, 서울: 소명출판사, pp. 64-68.

이 금일에 이른 이유이다. 네 성인의 역이 긴 밤인 것이 이천 여 년이니 어찌 깊이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37)</sup>

이 글에서 래지덕은 먼저 자신의 시대에 들어와 역경에 관한 방대한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역 자체의 해석 방법에 따라 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理)로써 역을 말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주희가 정이의 『역전』을 비판하면서 했던 관점과 유사하다. 역을 통해 의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의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역이 복서의 기원을 갖기 때문에 우선 상에 근거하여 역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8)</sup> 그런데 래지덕은 주희의 『본의』까지를 포함하여 자신의 시대까지 2000년 간 역학은 암흑기였다고 탄식한다. 이 말은 래지덕이 주희 역시 리로써 역을 말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거나 역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을 몰랐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을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래지덕은 네 가지에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①상(象)을 알지 못하는 것, ②문왕의 서괘를 알지 못하는 것, ③공자의 잡괘를 알지 못하는 것, ④괘변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네 가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을 올바르게 알고, 문왕의 서괘와 잡괘를 이해하고, 괘변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된다.

그러면 상을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래지덕은 기존의 역학자들이 괘효사의 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괘효사에 상이 쓰여진 다양한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성인이 괘효사를 지을

37) 來知德, 『周易集注』, 『序』, “本朝纂脩易經性理大全, 雖會諸儒衆註成書, 然不過以理言之而已. 均不知其象, 不知文王序卦, 不知孔子雜卦, 不知後儒卦變之非, 于此四者既不知, 則易不得其門而入, 不得其門而入, 則其註疏之所言者乃門外之粗淺, 非門內之奧妙. 是自孔子沒而易亡已至今日矣, 四聖之易如長夜者二千餘年, 其不可長歎也哉!”.

38) 朱熹, 『朱子語類』 권68.



때 오로지 「설괘」만을 참조하여 괘효사 속의 상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에 따라 상을 만들어낸 것이다.<sup>39)</sup> 따라서 괘효사의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괘효사를 쓴 성인이 상을 취한 다양한 방식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괘」에 건(乾)의 물상은 말이라고 나와 있지만 건괘(乾卦)의 효사에 용(龍)이라는 상징이 나오는데, 이럴 때 건괘 효사에 용이 나오는 이유를 「설괘」만을 가지고 설명하려 한다면 주희의 경우와 같이 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을 취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래지덕은 건괘의 효사에 용의 상이 나오는 이유는 ‘괘의 실정에 따라 상을 취하는 방식」[卦情立象]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40)</sup> 래지덕은 ‘괘정입상’의 방식 이외에도 괘획의 형태[卦畫之形], 중효(中爻), 착괘(錯卦), 종괘(綜卦), 음양에 따른 방법[卽陰陽], 효변(爻變) 등 실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상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41)</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착괘와 종괘로 상을 취한다는 것이다. 작은 건괘(乾☰), 곤괘(坤☷)와 같이 음양이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괘를 말하며, 중은 태괘(兌☱), 손괘(巽☴)와 같이 괘의 위아래를 뒤집어 놓았을 경우 모양이 서로 반대가 되는 괘를 말한다. 이때 착괘와 종괘로 상을 취한다는 것은 특정 괘와 착(錯)이나 중(綜)의 관계에 있는 괘를 그 괘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상을 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태(兌☱)는 호랑이의 상이 아니지만 태(兌☱)와 착의 관계인 간(艮☶)이 호랑이의 상이므로 호랑이의 상을 취할 수 있다.<sup>42)</sup> 마찬가지로 중의 관계에 있는 괘의 경우에

39) 來知德, 『周易集注』, 「易經字義, 象」. “卦中立象, 拘說卦乾馬坤牛”

40) 來知德, 『周易集注』, 「易經字義, 象」. “有自卦情而立象者, 如乾卦本馬而言龍. 以乾道變化, 龍乃變化之物, 故以龍言之. 『朱子語錄』, 或問卦之象, 朱子曰, ‘便是理會不得, 如乾為馬而說龍, 如此之類, 皆不通.’ 殊不知以卦情立象也.”

41) 來知德, 『周易集注』, 「易經字義, 象」.

42) 來知德, 『周易集注』, 「易經字義, 象」. “有將錯卦立象者, 如履卦言虎, 以下卦兌錯艮也.”

도 본래의 괘가 아닌 종괘로부터 상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착괘와 종괘에서 상을 취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면 상을 취하는 경우의 수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괘효사의 상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한히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래지덕의 착종설은 한대 이래 주희에 이르기까지 상수역학의 곤경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착종설이 과연 참된 역 해석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때 착종설은 단지 상을 취하는 방법론을 넘어 래지덕 역학 자체를 성립시키는 역학 이론의 차원에서 논의되게 된다. 여기에 래지덕이 ②문왕의 서괘 ③공자의 잡괘를 언급한 이유가 드러난다. 래지덕은 왜 기존의 역학자들이 서괘와 잡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였을까? 서괘란 문왕이 배열한 64괘의 차례를 말한다. 즉 서괘는 건괘, 곤괘에서 기제괘(既濟卦), 미제괘(未濟卦)에 이르는 괘 배열의 차례를 말한다. 그런데 래지덕은 괘의 순서에 대해 종괘의 설과는 다른 주장을 한다. 즉 그는 준괘(屯卦)를 곤괘(坤卦)의 뒤에 붙이고 수괘(需卦)를 몽괘(蒙卦) 뒤에 붙이는 식의 괘 배열 순서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로 공자의 『잡괘전』을 끌어들여 괘의 순서를 서괘와 같은 일직선의 차례가 아니라 착종의 틀에 따라 새로운 배열로 설명한다. 즉 곤괘 다음에 준괘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착종의 틀에 따라 건괘와 곤괘는 착의 관계로 준괘와 몽괘는 종의 관계로 묶어서 새롭게 배열한 것이다.<sup>43)</sup> 이제 착종설은 단순히 괘상을 취하는 이론이 아니라 『주역』 64괘의 배열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착종설은 단순히 64괘의 배열을 정하는 형식만이 아니다. 착종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주역』 64괘의 구조는 천도와 인사의 변화 규율을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종괘는 만사만물의 영허 소장의

43) 주백근(2013), p. 66.

과정 즉 음양 유행의 과정을 표시하고, 착괘는 천지와 남녀가 대립하면서 서로 교감하는 규율 즉 음양 대대의 법칙을 표시한다.<sup>44)</sup> 래지덕은 팔괘와 64괘의 착종하는 이치가 바로 천지 음양의 대대와 유행의 법칙이 『주역』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착종설이야말로 자연의 법칙을 반영하여 만든 역학의 핵심 원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착종설이 상을 취하는 정당한 방식이라는 것은 래지덕에게는 자명한 것이다.

착종설이 천지 음양의 대대와 유행의 법칙을 구현한 이론으로 파악하는 래지덕으로서는 음양소장의 원리에 근거한 ④괘변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하여 래지덕은 괘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오직 수괘(需卦)와 송괘(訟卦)가 서로 종(綜)의 관계가 되므로 잡괘(雜卦)에서 수괘는 나아가지 않고 송괘는 친하지 않다고 하였다. 둔괘(遯卦)는 대장괘(大壯卦)와 종의 관계이므로 잡괘에서 대장은 머무르고 둔은 물러난다고 하였다. 공자의 「잡괘전」이 이와 같이 명백한데, 송괘를 둔괘에서 왔다고 한다면 길을 잃어버림이 천 리나 되게 된다. 네 성인의 역이 긴 밤과 같이 감추어져 있었다고 한 것은 이를 말함이다.”<sup>45)</sup>

주희는 송괘 단전(象傳)의 ‘강이 와서 중을 얻었다’(剛來而得中)는 구절을 괘변에 의거하여 둔괘(遯卦)의 구사(九四)가 송괘(訟卦)의 구이(九二)로 와서 중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래지덕은 이를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44) 주백근(2013), p. 69.

45) 來知德, 『周易集注』「自序」, “惟需訟相綜, 故雜卦, 曰需不進也, 訟不親也. 若遯則綜大壯, 故雜卦, 曰大壯則止, 遯則退也. 孔子雜卦傳, 昭昭如此, 而乃曰, 訟自遯來, 失之千里矣. 所以謂四聖之易, 如長夜者, 此也.”

“강이 와서 증을 얻었다는 것은 수괘와 송괘가 서로 종이 되어 수괘의 상괘인 감이 송괘의 하괘로 와서 머무름에 구이가 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전의 유학자는 서괘와 잡괘를 알지 못하여 우번(虞翻)에 의지하여 괘변으로 해석하였다.”<sup>46)</sup>

래지덕은 주희가 송괘의 단전을 해석하면서 우번의 괘변을 활용하여 해석한 것도 주희가 서괘와 잡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64괘 사이에 존재하는 착종의 관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괘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은 결국 착종설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래지덕은 역학이 자신의 시대에 이르는 2000년 동안 어둠에 있었던 것을 네 가지 이유로 설명하였으나 결국은 그것이 착종설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착종설이 래지덕 역학 이론의 핵심이라는 것은 따라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4.2. 래지덕 역학 이론에 대한 비판과 대응

래지덕은 역학의 문제를 역의 해석 방법과 무관한 리(理)에 의한 역 해석에 있다고 보고 착, 중, 중효, 효변 등의 역 해석 방식을 적용하여 『주역』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중효는 한대의 호체와 같은 이론이고 효변 또한 한대의 해석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래지덕의 해석 방식의 특징은 착종설에 있다. 또한 래지덕은 착종설을 단지 과상을 취하는 해석 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의 법칙을 반영한 역학의 핵심 원리로까지 확장하여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주역』 해석과 관련하여 보면 착종설의 정당성은 자연 법칙이나 형이상학적 원리에 의해 찾아

46) 來知德, 『周易集注』 「訟卦」, “剛來得中者, 需訟相綜, 需上卦之坎, 來居訟之下卦, 九二得中也, 前儒不知序卦雜卦, 所以依虞翻以為卦變.”

지는 것이 아니라 착종설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역 해석 방법인가의 여부에 있게 된다. 무엇보다 착종설은 기본적으로 『주역』의 괘효사를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수학적 역 해석에서는 괘효사를 상에 의거하여 명확히 밝히고자 상을 취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안할수록 해석 방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해석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는 64괘 384효의 괘사와 효사에 나오는 상이 매우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역 해석 이론을 가지고는 많은 상들이 나오는 이유를 모두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왕필이 괘효사 해석에서 ‘득의망상론’(得意忘象論)을 주장한 것은 바로 한대 상수역학자들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느라 정작 괘효사의 의미를 밝히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었다.<sup>47)</sup> 어떤 낚시 도구를 사용하느냐를 다투다가 정작 고기는 낚아 보지도 못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주희는 『주역』의 괘효사를 상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해석 방법을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 래지덕은 바로 의리역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가 주장한 착종설이었다. 하지만 래지덕의 착종설은 상수역학의 고유한 문제를 안고 있다. 괘효사의 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많거나 다양해지면 비록 괘효사에 그러한 상이 쓰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반드시 그러한 상이 쓰일 수밖에 없는지를 일관된 체계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착종설은 그러한 상이 쓰여지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착괘와 종괘의 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 래지덕은 단지 착종이 우주 자연의 법칙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왜 특정한 괘효사 해석에 착괘와 종괘의 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7) 廖名春 외(1994), pp. 288-290.

래지덕의 착종설을 처음 접했던 조선의 역학자들은 수용 초기에는 그동안 괘효사 해석에 의문이 있던 구절들을 착종설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래지덕 역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차츰 래지덕의 상수역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해석의 대안을 찾게 된다. 19세기 초 남인과 노론을 대표하는 정약용(丁若鏞, 1762~1836)과 홍석주(洪奭周, 1774~1842)는 래지덕 역학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였지만 서로 다른 대안을 찾은 학자의 경우이다. 정약용은 래지덕 역학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비판한 「래씨역주박」(來氏易註駁)이라는 논설을 남겼고, 홍석주는 「독역잡기」(讀易雜記)라는 글을 통해 래지덕 역학에 대한 비판의 글을 남겼다. 정약용과 홍석주의 래지덕 상수역학에 대한 비판과 대응 양상은 어떠했는가?

정약용은 「래씨역주박」에서 모두 29개의 조목을 거론하면서 래지덕 역학에 대해 철저히 비판한다. 정약용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래지덕의 착종설이다. 정약용은 착종이라는 용어의 고증에서부터 해석 방법론으로서의 착종설의 문제까지 상세히 비판하였다.<sup>48)</sup>

래씨의 역학은 오로지 착·종 두 법을 세웠다. 건괘 초구에서 해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곤괘 초육에서 찾고자 하니 이것을 착법이라 한다. 준괘 초구에서 해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몽괘 초육에서 찾고자 하니 이것을 종법이라 한다. 감(坎)의 상은 리(離)에서 나왔으니 착으로 통하고, 진(震)의 상은 간(艮)에서 나왔으니 종으로 통한다. 법상이 변화가 많으니 문장이 간혹 어찌다가 합하게 되므로 오래도록 쌓여 안으로 징험되면 마침내 독실하게 스스로를 믿게 될 것이다. 예컨대, 어리석은 사람이 귀신과 도깨비에 이끌려서 산길을 잘못 들어갔다가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무릅쓰다가 한 갈래 트인 길을 얻으면 이전의 미혹되고 몽매했음을

48) 정약용의 착종설 비판과 관련하여 방인(2002), 「茶山の 明清易學 비판」, 『철학연구』 84집, 대한철학회, pp. 275-280. 참조.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sup>49)</sup>

정약용은 래지덕의 착종설이 착괘와 종괘를 가지고 괘효사의 상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과연 괘효사에 대한 정확한 해석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괘효사에 그 괘효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이 있더라도 착괘와 종괘에서 해당하는 상을 이용하면 괘효사의 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감(坎☵)의 상이 없으면 감(坎)과 착이 되는 리(離☲)의 상을 이용하고, 진(震☳)의 상이 없으면 진과 종인 간(艮☶)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래지덕의 착종설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은 문장과 일치하는 상을 찾아 그 괘사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은 마치 귀신에 홀려 산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길을 찾게 된 사람이 애초부터 제대로 된 길을 알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애초부터 착종설은 타당한 해석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정약용은 래지덕이 괘변설을 잘못된 해석 법이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도리어 착종설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50)</sup> 정약용의 비판은 래지덕의 역 해석 방법의 타당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홍석주 또한 래지덕의 착종설에 대해 비판한다. 하지만 홍석주는 착종설에 그치지 않고 중효설, 효변설 등의 해석 방법도 아울러 비판한다.

래씨의 『역전』은 네 가지 예를 가설하여 상을 구하면서 스스로

49) 丁若鏞, 『定本與猶堂全書』 권17 「易學緒言·來氏易註駁」 pp. 204-205. “來氏之學, 專立錯綜二法, 乾初九有所不通, 則求之於坤初六, 曰此錯法也. 屯初九有所不通, 則求之於蒙初六, 曰此綜法也. 坎象生於離, 則錯以通之, 震象生於艮, 則綜以通之. 法既多變, 詞或偶合, 積久內驗, 遂篤自信, 如一等癡人, 爲鬼魅所引, 枉入山蹊, 披荊冒樺時, 得一線開通, 不悟從來迷昧, 豈不哀哉!”

50) 丁若鏞, 『定本與猶堂全書』 권17 「易學緒言·來氏易註駁」 p. 206. “卦變非後儒之說. 孔子彖傳剛往柔來, 剛上柔下之等, 卦卦發明, 唯恐或晦, 不知其非, 不亦可乎?”

지극히 현묘하다고 하고, 선배 유학자의 설을 논파하면서 공자가 죽자 역이 이미 망하여 금일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그 의도는 장차 스스로 성왕(聖王)의 전달자가 되려함이니 참으로 어리석도다! 네 가지 조목이란 착, 중, 변, 중효이다. 대개 상괘(上卦)와 하괘(下卦)의 두 괘에서 상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착종괘와 중효에서 상을 구해 보고 또 다시 변효에서 구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해도 또 상을 구하지 못하면 중효의 착종괘와 변효의 착종에서 구해보고 또 다시 변효의 중효에서 구하니, 이와 같이 하면 결국엔 우연히 문장과 상이 합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래지덕이 스스로 천고에 전하지 못했던 비책이라고 한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는 것이다.<sup>51)</sup>

홍석주는 래지덕이 착, 중, 효변, 중효 등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괘효사의 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해석의 필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래지덕은 한 괘의 상, 하괘 모두에서 괘효사에 해당하는 상을 얻지 못하면 착괘와 종괘에서 상을 구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중효와 변효에서 상을 찾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적당한 상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 상을 찾는다고 하여 그것을 올바른 역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석주 또한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래지덕의 상을 취하는 방법이 결코 타당하다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이 착종설을 주로 비판한 것과 달리 홍석주는 래지덕의 나머지 중효설과 효변설에까지 그 비판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홍석주가 상수역학의 취상설 자체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홍석주는 『주역』을 해석하는 데 있어 괘효사의 상이 어떻게

51) 洪奭周, 『淵泉先生文集』卷36 『讀易雜記』. “來氏易傳, 設四例以求象, 自謂至玄至妙, 以剖擊先儒之說而曰, 孔子沒而易已亡, 至今日矣. 其意若將上接先聖之傳者, 嗚呼愚哉! 四例之目, 曰錯, 曰綜, 曰變, 曰中爻. 蓋求二體而不得, 則求諸錯綜, 求諸中爻, 又求諸變爻, 如是而又不得, 則求諸中爻之錯綜, 變爻之錯綜, 而又求諸變爻之中爻, 如是而見其偶合也, 則自以爲千古不傳之秘, 全在此矣.”



쓰여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그 자체는 옳바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괘효사의 상이 쓰여진 유래를 완벽하게 밝히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한다.

주자가 말하기를 ‘역에 상을 취하는 것은 본래 반드시 유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상고할 수 없으니 본디 반드시 그 상의 유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한 갑자기 잊으려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위대하도다 군자가 의논함이어! 이제부터 주자의 설을 따라야 한다.<sup>52)</sup>

괘효사의 상은 그렇게 쓰이게 된 유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억지로 탐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괘효사의 근본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다. 홍석주는 『주역』에 대한 모든 학자의 해석은 그 나름대로 하나의 해석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왕필과 래지덕의 『주역』 해석도 각각 그 나름대로 하나의 해석이다. 하지만 『주역』 해석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해석이 과연 역의 근본을 얻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한 기준에서 보면 왕필과 래지덕의 해석은 모두 근본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홍석주의 평가이다.<sup>53)</sup> 그 근본이 무엇인지 홍석주는 다시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아마도 주희의 역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래지덕의 착종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지만, 『주역』의 괘효사는 상에 대한 해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그것이 가능

52) 洪奭周, 『淵泉先生文集』卷36 『讀易雜記』. “理因象顯, 象以理有, 有是理而後, 有是象也, 則謂天下有理外之象, 可乎哉. 朱子曰. 易之取象, 固必有所自來, 而今不可復考. 固不必深求其象之所自來, 而亦不可遽欲忘也. 大哉! 君子之論也, 今從之.”

53) 洪奭周, 『淵泉先生文集』卷36 『讀易雜記』. “易不以合爲貴, 亦不以盡爲急, 惟得其本而後, 自無不合. 朱子之易, 非能盡也, 得其本而已, 王輔嗣 來知德之易, 非無合也, 離其本而已.”

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홍석주와 달리 래지덕의 입장과 일치한다. 정약용의 래지덕 역학 비판은 구체적으로 래지덕의 역 해석 방법론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래지덕이 착중설, 효변설, 중효설을 역 해석의 핵심적 방법으로 보고 괘변설을 부정하였다면, 정약용은 괘변설, 효변설과 중효설은 올바른 해석 방법이라고 보는 반면 착중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54)</sup> 결국 단순화하면 래지덕은 착중설을, 정약용은 괘변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착중설과 괘변설의 거리는 결코 좁혀질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차이가 큰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래지덕에서 착중설은 단지 역 해석 방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약용의 괘변론도 마찬가지이다. 정약용의 괘변론 또한 정약용의 역학과 자연 인식을 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5)</sup> 래지덕이 착중, 효변, 중효라는 해석 방법을 가지고 『주역집주』를 완성했다면, 200년 이후의 정약용은 추이(推移), 효변(爻變), 호체(互體)라는 해석 방법에 따라 『주역사전』이라는 새로운 『주역』 해석서를 완성했던 것이다.

## 5. 결론

정이는 『주역』을 실천 궁행을 위한 의리서로 파악하였으나 주희가 말

54) 정약용은 추이(推移), 효변(爻變), 호체(互體)를 역의 세 가지 요체[三奧]라 불렀다. 물상(物象)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체라 불리는 역이론과 결합될 때 올바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추이, 효변, 호체와 물상을 합하여 정약용은 ‘역리사법(易理四法)’이라 하였다. 『주역사전』은 바로 이 네 가지 방법에 의해 쓰여진 주석서인 것이다 (김영우(2000), 『다산 정약용 역학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96-97). 그런데 정약용의 효변은 추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래지덕의 효변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같은 듯하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래지덕의 중효와 정약용의 호체의 경우에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55) 정약용은 괘변을 ‘추이’(推移)라고 불렀다. ‘추이’라는 이름은 모기령(毛奇齡)이 먼저 사용한 역학 개념이다(김영우(2000), p. 99).

했던 것처럼 『주역』의 기원을 고려한다면 패효사의 상의 연원을 해명하는 것은 역학 연구자의 필수적인 임무가 될 것이다. 래지덕의 『주역집주』는 그런 점에서 상에 대한 해명을 통해 역을 완전히 해석하고자 한 노력의 극단적 산물이라 할 것이다. 사실 래지덕이 제시한 착종설을 가지고 도출하지 못하는 상이 없기 때문에 래지덕 역학은 상을 완벽히 해석한다는 목표를 이루어 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래지덕의 착종설을 적용하면 해명하지 못했던 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조선 시대의 학자들은 래지덕 역학에 큰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조선의 역학자들은 래지덕 역학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대부분 주희 역학을 존숭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반면 정약용의 경우는 래지덕이 목표로 했던 『주역』의 상에 관해 ‘역리사법’이라는 새로운 역학 이론을 창안하여 완전히 해명하고자 시도하였고 정이의 『역전』, 주희의 『주역본의』에 비견되는 『주역사전』이라는 방대한 저술을 이룩해 내었다.

조선의 역학사는 정이와 주희의 해석을 합본한 『주역전의대전』이 일정한 권위를 지속하였던 역학사로 이해해 왔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역학사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역전의대전』의 해석을 벗어나 스스로의 시각으로 『주역』을 해석하고자 한 다양한 시도들을 확인하게 된다. 래지덕 역학의 수용과 전개도 그러한 조선 역학자들의 새로운 역 해석의 탐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래지덕 역학의 수용과 역사를 통해 기존의 권위적 해석을 넘어 서고자 한 조선 역학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약용의 『주역사전』 또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 역학의 오랜 분투의 성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자 료】

- 來知德, 『周易集注』, 上海書店.  
毛奇齡, 『西河文集』, 國學基本叢書, 臺灣商務印書館.  
朴胤源, 『近齋集』, 한국고전번역원.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고전번역원.  
吳載純, 『醇庵集』, 한국고전번역원.  
任聖周, 『鹿門先生文集』, 한국고전번역원.  
作者 未詳, 『易說』, 《경학자료집성》 92, 『易經』 권6.  
丁若鏞, 『定本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程頤, 胡廣 等編 『周易傳義大全』, 保景文化史.  
朱熹, 『朱子語類』, 中華書局.  
\_\_\_\_\_, 『易學啓蒙』, 『性理大全』 1-2卷, 民族文化文庫.  
洪奭周, 『淵泉先生文集』, 한국고전번역원.  
洪良浩, 『耳溪外集』, 한국고전번역원.

### 【논 저】

- 戶田豊三郎(1968), 『易經注釋史綱』, 東京: 風間書房.  
주백근(2013), 김학권 외 역, 『역학철학사』, 서울: 소명출판사.  
廖名春 외(1994),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김영우(2014), 「金濤 『周易淺說』의 義理易學 연구」, 『동양철학』 42집, 한국동양철학회.  
\_\_\_\_\_(2013), 「『尤庵易說』 研究」 『동양철학』 40집, 한국동양철학회.  
\_\_\_\_\_(2004), 「다산과 모기령의 역학사상 비교연구」, 동방학지 127.  
\_\_\_\_\_(2000), 「다산의 역학사상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방 인(2002), 「茶山の 明清易學 비판」, 『철학연구』 84집, 대한철학회.  
서근식(2005), 「성호 이익의 『주역』 해석에 관한 연구」, 『퇴계학논집』 117, 퇴계학연구원.

엄연석(2013), 『조선전기역철학사』, 서울: 한국연구원,  
\_\_\_\_\_(2011), 『이세응의 의리역학적 『주역』 해석과 상수적 요소』, 『民族文化』, 38집.  
\_\_\_\_\_(2009), 『순암 안정복의 『주역』 인식과 상수의리론』, 『철학사상』 34권, 서울대학교 철학 사상연구소.  
\_\_\_\_\_(2001), 『조호의 역학의 상수학적 방법과 의리학적 목표』, 『대동문화연구』 38.

李世東(1996), 『朱子『周易本義』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최영진, 이선경(2014),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일고찰』, 『정신문화연구』 135호.

원고 접수일: 2014년 12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5년 1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월 28일

ABSTRACT

---

The Reception and Criticism of Lai Zhi-de's (來知德)  
Study of Changes (易學) in the Joseon Dynasty

Kim, YoungWoo\*

This study examined the patterns of the Joseon scholars' reception and criticism of Lai Zhi de's study of change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history of the study of changes in the Joseon Dynasty may be called the history of the Neo-Confucian study of changes. In this trend, however, the interest of the scholars continued to be in a symbol-number-based study of changes, which tried to interpret the words of Gua and Yao in *The Book of Changes* through exploring the 'symbols' (象) of Gua and Yao, and in the course, Lai Zhi de's *Juyeokjipju* drew people's attention. Lai Zhi de's study of changes became an object of criticism, but it played the role of a positive stimulation to Joseon intellectuals who tried to interpret *The Book of Changes* in a different way beyond the authority of Neo-Confucianism.

---

\* Institute of Human, Environment and Future, Inje University